

충청북도가 AI청정지역을 유지한 비결은 한발 앞선 적극적인 방역행정 추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2000년과 2002년 구제역, 2003년 AI 발생을 극복한 경험으로 실용적인 방역시스템 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2004년 이후 청정지역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꾸준히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무항생제 면역증강 물질 및 가공장 지원(90억원)과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지원(111억원), 생균제 및 가축분뇨자원화 사업(200억원) 지원과 양축농가와 행정기관이 함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사전 방역활동을 한 결과다.

## 충청북도(忠淸北道), AI 청정유지 비결과 앞으로의 계획은?

지난해 봄, AI가 전국을 휩쓸고 지나갔지만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유일하게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충청북도의 비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2008년 발생한 AI는 2003~2004년 발생 사례나 2006~2007년 발생사례와는 달리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를 비롯한 11개 시·도, 19개 시·군에서 발생, 전국이 AI의 영향권 안에 들어갔지만 충북만이 유일하게 청정지역을 유지해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더욱이 충청북도는 지리적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5개 도와 인접되어 있는 국토의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고 남북으로 7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등 전국을 연결하는 도로망으로 인하여 구제역, AI 등 전파력이 빠른

양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방역 관점에서 보면 전파와 차단이 길목(갈림길)에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 할 수 있다. 2000년과 2002년 구제역 발생시 충북, 충남, 경기도가 차단방역에 성공함으로써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지역으로의 전파를 막은 것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충청북도 축산팀의 광용화 과장은 “이런 성과는 발생을 막자는 행정기관과 축산농가의 공감대가 형성이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된 것” 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독, 출입차단 등 외부 방역활동과 병행하는 동시에 2003년부터 생균제 53억원 지원, 2005년부터 전국 최초의 면역증강물질 25억원 지원, 200호 이상의 무항생제 축



【표 1】 지역별 오리 사육두수 및 농가수

	오리			
	가구수	마리수 (천마리)	농가당 평균	순위
전국	7,184	10,513	1,463	
경기	513	595	1,160	5
강원	984	90	91	9
<b>충북</b>	<b>689</b>	<b>1,323</b>	<b>1,920</b>	<b>3</b>
충남	1,096	570	520	6
전북	860	2,149	2,499	2
전남	1,280	4,914	3,839	1
경북	623	167	268	8
경남	704	336	477	7
제주	26	42	1,605	4

※충북·전북·전남 3개도의 전국 오리 사육 점유율이 79.8%임



산물 인증농가 육성(전국 24%로 1위) 등을 통해 닭, 오리 개체의 면역력을 높이는 사업을 추진한 결과가 가시적인 효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충청북도는 AI가 발생하면 처분하여야 할 마리수가 비교적 많으며, 특히 오리 사육규모는 전국의 12.6%

를 점유하고 있는 집산지로서, 농가당 평균 사육두수도 전국 3위로서 규모화·전업화가 되어 있다.【표 1. 참조】

◎2008년 발생 조류인플루엔자, 전국으로 퍼져...

지난 2008년 4월 1일 전북 김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첫 발생한 이후, 5월 12일 경남 경산·양산 지역까지 11개 시·도 19개 시·군·구에 서 총 33건 발생하였다.【표 2. 참조】

AI는 전북 김제를 시작으로 서해안을 따라 경기...서울...강원도로, 내륙을 따라 충남으로, 남해안을 따라 전남...부산...경남...대구...경북으로 이동하였으나 충북 도에서 확산을 차단함에 따라 충북, 경북 북부,

【표 2】 2008년 AI전국 발생상황

순서	발생일	지역	축종	순서	발생일	지역	축종
1	4. 1	전북 김제	닭	18	4. 21	전북 익산	닭
2	4. 3	전북 김제	오리	19	4. 22	충남 논산	오리
3	4. 6	전북 정읍	오리	20	4. 28	경북 영천	닭
4	4. 7	전북 정읍	오리	21	4. 28	경북 영천	닭
5	4. 9	전북 김제	닭	22	4. 28	울산 울주	닭
6	4. 9	전북 김제	닭	23	4. 28	부산 강서	오리
7	4. 9	전북 김제	닭	24	4. 30	대구 수성	닭
8	4. 9	전북 김제	닭	25	5. 3	서울 광진	닭
9	4. 9	전북 김제	닭	26	5. 4	강원 춘천	닭
10	4. 9	전남 영암	닭	27	5. 4	경기 안성	닭
11	4. 12	전북 김제	닭	28	5. 7	경기 안성	닭
12	4. 14	전북 순창	오리	29	5. 8	서울 송파	오리
13	4. 14	경기 평택	닭	30	5. 8	부산 기장	닭
14	4. 16	전북 김제	닭	31	5. 8	부산 해운대	닭
15	4. 16	전북 김제	닭	32	5. 12	경북 경산	닭
16	4. 17	전북 정읍	닭	33	5. 12	경남 양산	닭
17	4. 19	전북 김제	닭				

※발생현황: 서울 2(광진, 송파), 부산 3(강서, 기장, 해운대), 대구 1(수성), 울산 1(울주), 경기 3(평택, 안성), 강원 1(춘천), 충남 1(논산), 전북 17(익산, 김제, 정읍, 순창), 전남 1(영암), 경남 1(양산), 경북 2(영천, 경산)

강원도쪽으로는 전파를 차단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예년의 발생양상과 달리 위험시기(11~2월)가 지나고 단기간 내 전국에서 가히 폭발적으로 발생하였으나 충북도는 내륙지방에서 유일하게 청정화를 유지한 지역임을 보여주고 있다.

## ◎앞선 행정, 체계적 방역으로 AI를 이겨낸 충청북도(忠淸北道)

충청북도가 무차별적인 AI 발생에도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에는 앞서가는 행정과 체계적이고 철저한 방역관리 시스템, 농가 스스로의 방역의식 개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충청북도의 경우 이 모든 조건들이 조화를 이루었다는 점에 있었다. 특히, 닭·오리 개체별로 면역증강제(생균제 등)를 공급, 건강하고 튼튼하게 사육되도록 하여 AI 뿐만 아니라 질병에 잘 견디도록 한 사례 역시 AI 청정 유지에 일조했다고 할 수 있다.

### 1 한발 앞선 방역행정 추진

정우택 충북도지사는 전북 김제에서 최초로 AI가 발생했던 4월 초와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5월에 각각 도지사 특별지시사항으로 'AI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언급하고 청정화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관리자들은 수년간의 경험을 살려 보다 일사분란한 조기대응에 성공하였고, 공무원들 스스로도 AI 대책 상황실 근무조 이외 자율 지원근무체제로 공조하였다.

또한 축산위생연구소, 시·군 공무원 및 축산단체 간 유기적인 협조도 AI 청정화에 한 몫을 담당하였는데, 농협충북지역본부의 경우 자체적으로 AI 특별방역상황실을 운영하며 휴일비상근무도 불사, AI 예방을 위한 소독약품과 생석회 15톤을 지원하였고, 자체적인 전화예찰, 소독활동 지원 등 다각적 방역활동에 앞장섰다.

### 2 체계화된 선진 방역시스템 구축

충청북도는 지난 2000, 2002년 구제역 발생과 2003년 AI 발생 극복 경험으로 실용적인 방역시스템을 위



해 질병 종식 후 시·군 극복사례 발표, 재난훈련실시 등 여러 가지 훈련을 강화해 왔으며, 이를 계기로 2007년 행정자치부로부터 평가 우수상을 수상했을 만큼 실용적이면서도 철저한 선진 방역시스템을 구축한 곳이다.

이는 지난해,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이전에 예방적 차원에서 8억3백만원의 소독약품 전량 지원하고 도내 전화예찰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즉각적인 방역상황 전달, 일제소독의 날 운영 등 시의적절한 예방 활동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 3 AI청정화를 위한 예비비 및 방역예산 적기 지원

또한 충청북도는 매년 예비비의 일부를 차단방역에 이용하고 있는데(2007년 3억9백만원, 2008년 2억4천

만원), 지난해의 경우 3천6백만원의 방역예산을 소독약품 및 소독시설에 조기집행하여 바이러스의 침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4 양계·오리농가 친환경사육시스템 중점보급으로 면역력 증진**

충청북도는 기본적인 방역 및 예찰활동을 바탕으로, 가축 스스로의 면역력을 증진시키고 자체 항병력을 증강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생균제, 무항생제 면역증강물질, 친환경 축산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 왔다.

특히, 전국 최초로 무항생제 면역증강물질을 지원한 점과 전국 1위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농가 보유는 이러한 충북도의 목표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곽용화 축산팀장은 “우리 도에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양축가들이 원하는 장비와 생균제, 면역증강제, 환풍기 지원, 축산분뇨처리 시설 확대 등 친환경 사육과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양축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맞춤형 농정시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정 축산의 비결을 살짝 공개하기도 하였다.

**5 양축농가의 적극적인 방역활동 참여**

충청북도 AI 청정화에 가장 빛을 발한 점은 바로 양축농가들이 방역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행정기관의 정책과 지원만으로는 AI 청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당사자들인 양축농가에서 방역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정부 및 유관기관에 협조하여 방역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지난 2008년 AI 발생시에도 충청북도의 양축농가들은 자발적으로 16개소의 통제초소를 운영하고 220개 공동방제단(단원 947명)을 매주 수요일마다 동원해 공동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재래시장 또는 5일장의 닭·오리 판매상들 또한 방역활동 및 판매중지 명령에

적극 협조하였다.

일례로, 충북의 한 오리농가는 AI 발생 의심을 받자 1만수에 달하는 오리를 자진하여 폐기처분하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개별농가들의 청정지역 유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AI 청정 노력, 역차별 받았다든 평가도...**

그러나 AI 청정화를 위한 이같은 노력에도 어떠한 메리트는 커녕 가격이 폭락하고 소비는 급락해 산업이 어려워진데다가 AI 발생농가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비롯한 각종 지원이 이어졌으나, 청정지역 농가들의 이러한 피해상황에는 아무런 지원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발생농가들보다도 더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특히, 충북의 양축가들은 가격안정을 위한 수매사업도 이용제한지역의 가금이 우선시되었으며, 소득안정자금 지원 등에서는 오염, 경계지역, 역학관련 농가 외에 일반농가는 아예 제외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전체 106점의 AI 방역 유공자 포상계 획안에서 충북도는 장관표창 단 3점만 배정돼 불리한 대우를 받았다고 입을 모았다.

충북 진천의 한 오리농가 대표는 “잘한 일은 그에 대해 합당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마땅한 이치인데 AI 발생을 철저히 막아 정부예산을 500억원 가까이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음에도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것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된 일”이라며 성토했다.

또, 음성의 한 농가대표는 “지난 봄에는 충북 양축가들 사이에서 AI 안 걸리면 손해니 AI 발생하도록 노력하는 얘기가 나돌 정도”였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AI 청정화가 충청북도에 가져다 준 이점**

조류인플루엔자(AI)가 전국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는데도 불구하고 충북도는 행정기관과 축산농가가 푹푹 묻혀 막아냄으로서 전국 유일의 AI 청정지역 유지 노력의 성과를 거둔 것은 도민 자부심과 자긍심을 심어

기교심은 농촌 · 살고싶은 농촌  
농업명품도 충북

**자연순환형  
생산기반 조성**

- 예방위주 상시방역으로 「AI청정지역」 지속유지 (조동방역 시스템 구축)
- 친환경 사육시스템과 지속가능한 축산육성 (환경개선 2,000호, 깨끗한 목장 800호)
- 축산·경종이 연계된 자연순환형 분뇨처리 (공동자원화 5개소, 액비유통센터 6개소)
- 대단위 사료작물 재배단지 조성으로 사료자급기반 마련 (2010년까지 ... 3천ha)

**명품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

- 친환경 축산물 생산 확대로 경쟁력 UP (정예축산경영체 2,000호)
- 청정축복의 한우를 '청정명월 한우'로 광역브랜드(Brand)화 (6개 축협 ... 8개 축협)
- 친환경축산클러스터 사업으로 수도권 판매망 구축 (30개소 ... 50개소)
- 대도시 축산물 공급 물류기지 조성 (청원, 진천, 음성)

**청정축산물 충북  
브랜드 창출**

- 청정축복 브랜드홍보 마케팅 강화 (700억원 매출향상)
- 「청정축산지역」 이미지 담긴 제품 개발 (소, 돼지, 닭 9종)
- 전국 최고(BEST)의 청정 친환경축산물 인증도 유지 (230호 ... 620호)
- 먹거리·볼거리·즐길거리가 조화된 테마마을 조성 (송마랜드조성 4개소, 낙농체험 목장 2개소)

**- 경쟁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확대 -**

준단적인 사례로 부각되고 있다.

충북도청 축산방역팀의 김창섭 계장은 “고유가 시대에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이번 AI를 거울삼아 할 수 있다는 굳은 각오로 대처한다면 능히 극복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나타냈다.

AI 청정지역으로 나타난 한 발 앞선 방역시스템은 명실상부 타 지역의 롤 모델(Role Model)로서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봤을 때 충북의 청정 이미지가 한층 더 높아져 농업, 관광 등 타 분야에도 파급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농업명품도 충북 건설과 직결 된다.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선진 방역시스템으로 통제초소 설치비용, 후속조치에 따른 도비 부담 등 방역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으며 지난해 AI 발생시에도 전국에서 6,300억원 피해액이 산출된 가운데, 충북도는 AI 청정화로 약 5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으로 「청정축산지역 충북(忠北)육성으로  
“농업명품도 충북” 실현

앞서 겪었던 구제역, AI 등 악성가축전염병을 이겨낸 충청북도는 앞으로 청정축산지역으로 육성, ‘농업명품도 충북’을 실현코자 자연순환형 생산기반 조성, 명품축산물 유통체계 구축, 청정축산물 충북 브랜드 창출 등 3개의 큰 목표와 12개의 세부이행과제를 실천, 전국에서 가장 가치있는 축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왔다.